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장 훈장 수상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결실
 의료법 '간호사 업무' 64년 만에 개정
 우리나라 최초 환자안전법 제정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성공 개최



대한간호협회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신경림 이화여대 교수가 황 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한간호협회장과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보건의 날 수상 후보자로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천한 결과 훈장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4월 7일 열린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해 수상을 함께 나눴다. 신경림 교수는 제32대 및 제33대 대한간호협회장(2008. 2~2012. 2)과 제19대 국회의원(2012. 5~2016. 5)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간호의 선진화된 법·제도적 토대를 굳건히 다졌으며, 국제 경쟁력과 위상을 드높였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양성평등의 실효성과 여성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신경림 교수는 대한간호협회장 재임 당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2011년 4월 2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4년 학제 일원화가 이뤄졌다.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함으로

써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환자안전법' 제정을 추진해 결실을 맺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법 개정을 이뤄냈다. 이 법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의료법 중 간호부문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간호사들이 부응할 수 있게 됐고, 간호보조인력과의 업무체계를 정립하게 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의 법적 근거도 명시됐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장과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평가원이 간호교육 질 관리 주체로서 역량과 위상을 갖추도록 힘썼으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여성건강연맹 회장을 지냈다. 특히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서울에 유치했으며, 조직위원장으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었다. 최대 규모의 수준 높은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 간호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 간호의 모범과 비전을 제시했다. 간호학 연구자로서 한국의 질적연구방법론을 체계화하고 확산시켰으며, 여성건강 및 노인건강에 대한 연구와 건강증진사업에 힘썼다. 신경림 교수는 한국간호과학회 우수간호과학자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국제질적연구센터(IIQM) 국제지도자상, 국제시그마타우(STTI) 간호사 연구자 명예의 전당 등을 수상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올해 180만명 잠복결핵검진 실시

결핵퇴치 위한 '결핵 안심국가' 본격 시행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결핵 취약자 180만여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됐다. 3월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12만명, 어린이집 종사자 14만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만명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이 실시됐다. 학교 밖 청소년 1만명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4월부터는 고교 1학년 학생과 교원 47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고교 1학년은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건강검사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5월에는 교정시설 재소자 4만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이 실시된다. 7월부터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 64만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제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

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15~24세의 젊은 층에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5~19세 결핵 신환자는 750명으로 전년대비 23.8% 감소했으며, 20~24세는 1419명으로 15.7% 감소했다. 외국인 결핵 신환자는 지난해 2123명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돼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3만여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큰 상황이다.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이며,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커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정기서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결핵 안심국가 사업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다문화가족 '다누리콜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다누리콜센터의 2016년 상담건수가 12만4401건으로 2013년 8만9887건에 비해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통합 3주년을 맞아 상담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해왔다. 다누리콜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출신 상담원 85명이 한국생활 정보제공, 가족갈등 상담, 긴급·위기지원 등을 365일 24시간 제공한다.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제공한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2014년 11만516건, 2015년 11만6039건, 2016년 12만4401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2014~2016년 주요 상담내용은 다문화가족 갈등 관련(46.9%), 생활정보상담(35.0%), 폭력피해(11.1%) 순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교육을 확대하고, 상담 지침(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 건강관리 필요

소년도 15.1%(188명)로 나타났다. 또한 B형간염 면역자는 29.8%(1995명)였으며, 10명 중 7명은 B형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검진자 5669명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41.1%(2329명), 주의 11.0%(626명)로 구강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 재학 청소년과 비교해 동일 연령대(9~18세) 학교 밖 청소년의 구강질환 유병률이 치아우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발달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이 질환의심자로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6986명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주요질환, 건강생활습관 등을 분석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실시됐다. 재학 청소년이 매 3년마다 학

교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도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2016년 전면 도입됐다. 기본검진자 6862명 중 18.1%(1242명)의 청소년이 질환의심자로 나타났다. 의심질환은 심장질환 6.6%(455명), 고혈압 4.6%(313명), 간장질환 2.5%(173명), 빈혈 2.0%(138명) 등의 순이었다. 질환의심이 두 가지 이상인 청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 ◆의료인 면허신고제
 -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면허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 ◆2017년 면허신고 대상
 - 2013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면허신고하지 않은 자
 - 2012년 또는 2013년 면허신고 후 재신고하지 않은 자
 - 2014년 면허 취득자
 - 2014년에 면허신고를 완료한 자
- ◆신고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 면허신고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유예확인서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면제·유예 미확인 시 신고불가)
 - ※ 2017년 신규 면허자의 경우 2020년이 면허 최초신고 해가 됩니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한 해인 2017년에는 면허신고할 수가 없으며, 면허신고 확인증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신규 취득한 해에는 보수교육 이수 대신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KNA 면허신고센터
 -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lic.koreanurse.or.kr)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클릭
 - 콜센터 ☎ 1644-1755

여성폭력예방 '올해의 강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폭력예방 '올해의 강의'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5월 10일까지 받는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4회째다. 여성폭력예방 관련 강의 경험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성양식 다운 및 제출방법은 홈페이지(kigepe.or.kr) 참조. 선정결과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자는 기독교방송(CBS) 강연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통해 공개강연을 하게 된다. 강연영상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koreanurse.or.kr	nursenews.co.kr	

제1기 ICN Leadership for Change (LFC) 워크숍 참가자 모집 안내

-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

대한간호협회에서 아시아지역 간호사의 국제적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ICN)에서 개발한 Leadership for Change(LFC)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설립한 센터이다. 2015년 6월 새미안 ICN 회장과 당시 벤튼 ICN 사무총장 참석 하에 KICN 간호리더십센터가 출범되었다.
- ICN LFC 프로그램

ICN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전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996년 개발된 이후 현재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ICN LFC 이수증(Certificates)과 ICN LFC 편이 수여된다. 추가로 워크숍 III의 Training of Trainers Program(TOT)을 이수하면 차기 일부 LFC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제1기 ICN LFC 프로그램 일정(안)
 - 워크숍 I : 2017년 7월 10일(월)~14일(금)
 - 워크숍 II : 2018년 1월 8일(월)~12일(금)
 - 워크숍 III : 2018년 7월 9일(월)~13일(금)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평가미팅/졸업식, TOT 프로그램 3일)

■ 제1기 ICN LFC 프로그램 구성(안) (*세부 커리큘럼 : 합격자에게 추후 공지)

항 목	내 용	활 동
Workshops I, II, III	5가지의 모듈 1. health system reform 2. organisation and management 3. resource utilization 4. nursing leadership and project planning 5.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Learning Activities	1. 리더십 개발 2. 관리능력 개발	1. 워크숍 실시 기간 2. 워크숍과 차기 워크숍 사이
Mentoring	1. 멘토 역할 : IDP 지원, 팀 프로젝트 협조 2. 멘토 선출 : 참가자, 코치 등이 선출 3. 멘토 가이드라인 제공	참가자는 프로그램 수료 시에 차기 참가자의 멘토 후보자가 될 수 있음
Individual Development Plan(IDP)	IDP(개인 리더십·관리 계획) 개발 및 수행	1. IDP 양식 제공 2. 다양한 섹트 평가도구 제공 3. IDP는 멘토링에 효과적임
Team Projects	1. 국가의 보건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 개선 및 향상 2. 프로젝트 관리 능력 및 경험 제공	팀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제공

- ICN LFC 프로그램 강사

이 름 : Kristine Qureshi PhD, RN, FAAN
최종학력 : Columbia University, PhD(2003)
경 력 :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School of Nursing and Dental Hygiene(2006년~현재)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2001~2006)
- 신청자격
 1.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임상, 교육, 보건 및 지역사회 간호 또는 정책 분야에서 총 7년 이상의 경력자
 3.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변화 주도에 관심 있는 자
 4.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 후 국내·외 간호리더십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워크숍 장소 : 대한간호협회
- 모집인원 : 35명 이내
- 등 록 비 : 300만원(1년 과정 : 워크숍 I, II, III, 팀 프로젝트, 개인개발, 학습활동 등 포함)
- 대한간호협회 지원(1년 과정 이수자에 한함)
 - 지원금 : 150만원(대한간호협회 3년 이상 회원등록) / 90만원(대한간호협회 2년 회원등록)
- 영여통역 제공(순차통역)
- 제출서류
 - 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증명서, 등록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동동의서, 서약서
 - ※ 제출서류 양식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ICN : 리더십능력 자가 평가/ 동료 평가/직원 평가/상위자 평가, 커뮤니케이션 평가, 서약서
 - ※ ICN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공지 예정임
- 신청마감일 : 2017. 5. 17. (수) 17:00(이메일 접수 : korn@koreanurse.or.kr)
합격자 발표 : 2017. 5. 23. (화) 개별 공지
- 문 의 : 담당자(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국 이동희) / ☎ 02)2260-2548, 이메일 : korn@koreanurse.or.kr